성불도 과학과 공학으로

현불논단



지승도 명예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과학과 공학의 차이가 뭔지 아나?"

이공계 취업 준비생이라면 알아야 할 단골 면접 메뉴다. 과학은 진리 탐구가, 공학은 진리 활용이 목표인 바, 이치를 터득해서 이로운 물건을 만드는 지적 과정이 과학과 공학이다.

15세기 전후 신에 의한 일방적 진리가 마감하면서 합리적 이성에 의한 과학과 공학의 시대가 열렸다. 만유인력의 법칙, 맥스웰 법칙, 상대성이론, 전파 발견, DNA 발견, 열역학 법칙, 양자 이론 등등 수많은 과학적 발견과 원칙과 법칙에 힘입어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AI, 양자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문명 발전을 이어 올 수 있었다. 과학이 공들여 밝힌 것을 공학이 멋지게 응용한 결과다. 인류에 이익되기를 기대하며….

그래서 살림살이가 나아졌을까? 겉은 풍요롭고 화려해졌으나 속은 빈곤하고 삭막해졌다. 왜일까? 첫 단추부터 어긋난 과학 때문이다. 실체를 전제로 했기에 부분적으로만 통용되는 반쪽짜리 과학일 뿐이었다. 궁극적 과학이 아니었다.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에 포섭되듯이 궁극의 과학은 붓다가 통찰한 바, 공성의 연기법을 벗어날 수 없다.

다행히 양자 역학, 뇌 과학, 인지 과학 등 현대 과학이 기존의 이원적 틀을 탈피해 비이원성을 수용함으로써 붓다의 과학을 조금씩 증명해 가고 있다. 하지만 논리적 증명에는 부득이 한계가 따른다. 언어가 갖는 이원성 때문이다. 따라서 붓다의 과학은 개별적 깨달음을 통해서만 증명된다. 물질과 마음,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공성의 과학이기 때문이다.

과학, 관찰 바탕한 지혜 통찰
공학, 지혜 토대 개조·개발 행위
완전한 과학·공학 완성물이 성불

깨닫기만 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아니다. 과학이 밝힌 지혜를 개별적 공학으로 구현해 내야만 바른 삶은 완성된다. 과학이 관찰을 원인으로 하는 지혜 통찰이라면, 공학은 지혜를 원인으로 하는 개조·개발 행위다.

실체는 없지만 상호의존성이란 근원적 작용력을 활용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해체시킨 뒤 붓다의 몸과 마음으로 환골탈태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공학이 어디 있을까? 물질적 완성은 물론 정신적 충만까지 보장할 완전한 과학과 공학의 완성물이 나와야 한다. 바로 성불이다. 인간 완성의 길이다. 과학 없는 공학은 모래 탑과 같고 공학이 뒤따르지 않는 과학 또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깨달음 없는 방편이 그렇고, 방편으로 이어지지 않는 깨달음이 그렇다. 지혜와 방편의 양 날개를 펼쳐야만 궁극의 길은 열릴 것이다.

칼바람 불어 대는 히말라야 끝자락 랍치설산의 높은 동굴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혹독한 눈보라를 견디며 마침내 깨달음을 성취한 밀라레빠는 랍치설산 바위에 발자국만 남긴 채 중생제도의 일념으로 속세를 향해 솟아오른다. 오른손을 쫑긋 귀에 갖다 대고 뭇 생명의 아우성에 귀 기울이며 온갖 기행과 신통을 선보인 밀교 수행자 밀라레빠는 어떤 과학과 공학을 성취했을까? 랍치설산에서 그가 읊은 깨달음의 노래 한 구절로 마무리한다. "윤회의 현상 세계에 실체는 없나니, 실체라는 믿음은 환상에 지나지 않네. 밤낮으로 마음을 관찰한다면 아무런 실체 없음을 보게 되리니 지혜와 방편의 양 날개 펼치면, 전지전능의 광대한 하늘로 솟아오르리."

한쪽 바퀴로는 수레를 굴릴 수 없다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산중에 고립된 승가와 세속에서 파편화된 신도, 일방적 가르침과 수동적 외호라는 비대칭적 관계가 고착되면서 불교는 변화의 수레를 한 발짝도 밀고 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불교가 잠들어 있던 내재적 혁신 동력을 깨워야 할 때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혁신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은 불교 공동체를 떠받치는 두 기둥, 출가와 재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불교의 미래는 이 두 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때 비로소 열릴 것이다.

먼저 출가 승가는 '지혜의 깊이'를 책임져야 한다. 단순히 경전을 암송하고 연찬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후 불안, 디지털 소외, 관계의 파편화 등 현대인들이 겪는 새로운 형태의 고통을 진단하고 시대의 고통을 꿰뚫어 보는 '창조적 해석자'가 돼야 한다. 자비와 연기의 가르침을 개인의 마음 문제를 넘어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지혜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방적으로 답을 주는 권위적 스승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돕는 '안내자'로서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사찰을 기복적 의례 공간을 넘어 명상과 심리 상담 등 실질적 위안을 주는 '실천적 수행'의 공간으로 개방하는 것 역시 출가자의 몫이다.

출가, 현대 고통 꿰뚫고 지혜 제시
재가, 능동적 실천·현실 화두 제기
불교혁신 출·재가 파트너십에 달려

다음으로 재가불자는 '실천의 넓이'를 구현해야 한다. 세속의 삶 자체가 수행의 장이므로 스님의 법문에 의지하는 수동적 신자의 모습에서 벗어나 '능동적 실천가'가 돼야 한다. 이는 자신의 소비 생활이나 직업윤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불교가 외면해서는 안 될 '세상의 질문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나 환경 문제 같은 현실의 화두를 교단에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불교의 지혜를 깨워 현실과 만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양이다. 이러한 '사회적 실천'은 개인의 해탈을 넘어 공동체의 안녕과 시대의 아픔을 보살피는 보살의 길과 다르지 않다.

결국 불교 혁신의 성패는 이 둘의 파트너십에 달려 있다. 이 관계는 서로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는 '상호 인정'과 일방적 공격이나 무시가 아닌, 끊임없는 대화로 합의를 만들어 가는 '설득'의 토대 위에 서야 한다. 물론 그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이견과 갈등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이 생산적인 긴장이야말로 더 높은 차원의 합의를 도출하는 화쟁의 과정이다. 재가가 삶의 현장에서 길어 올린 절박한 질문을 던지고, 출가는 깊은 성찰로 지혜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출가가 지혜의 '수직축'을 세우고 재가가 실천의 '수평축'을 넓힐 때, 비로소 불교는 우리 사회의 좌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살아난 불교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의 희망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에 대안적 삶의 가능성을 보여 줄 것이다. 출가와 재가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불교라는 수레는 시대의 고통을 싣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社 說

법 집행과 종교 존중의 균형을

최근 경찰이 금산사와 은적사를 압수수색한 일은 불교계 안팎에 큰 충격을 던졌다. 조계종의 교구본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도 안타깝지만, 전통사찰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불교는 1700년 동안 이 땅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뤄왔다. 금산사와 은적사 역시 그 역사와 전통, 수행의 정신을 잇고 있는 신앙의 터전이다. 법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지만, 법 집행이 문화적·종교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잃는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불교계가 이번 일을 단순히 '종교탄압'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조계종이 강조했듯, 이번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하고 만약 내부의 부정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종단 스스로의 투명성과 도덕성이 담보될 때만이 불교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 법의 과잉이 문제이듯, 종교의 자기성찰 부재 또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절제다. 경찰 당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종교적 특수성과 국민의 신앙 감정을 충분히 헤아려, 신중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불교계 역시 자정과 쇄신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법이 공정하게 작동하면서도 신앙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불교가 지향하는 자비 공동체의 길일 것이다.

광화문 광장서 확인한 태고종의 저력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는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석에는 전국 태고종도와 국내외 불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이번 법석은 태고종이 지난 20여 년간 진행한 행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변화한 태고종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만여 태고종도와 불자, 시민들은 십선계를 수지하고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바라밀과 보살도를 함께 실천할 것을 다짐해 큰 감동을 알렸다.

태고종은 상진 스님의 총무원장 취임 이후 내부적으로 종단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외부적으로는 종단 홍보와 사회 실천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임제종 제18대 법손인 석옥 청공 선사와 태고 보우 국사의 법맥과 불교 교류사를 조명하는 일련의 노력들은 종단의 법통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올해에도 태고종은 후저우시불교협회를 초청해 국제학술대회를 이어가는 등 종조 법맥을 조명했다.

이번 영산재·국제수계법회, 국제학술대회, 태고 보우 국사 탄신 다례재는 변화·발전한 태고종의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태고종이 빠르게 안정화·발전할 수 있는 것은 전통종단으로서의 저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태고종도들의 과제도 명징하다. 이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결국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 화합 정신에 그 근본이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69년(2025) 11월 19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1월 1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1월 1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69년(2025) 11월 1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